

강진 한우 유전체 검사 통해 '한우개량 원스톱 서비스' 제공

올해 9월부터 혈통암소 700두 유전체 분석 완료 농가 맞춤형 현장컨설팅 진행...전국 브랜드화 속도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을 위한 '2022년 한우 유전체 분석검사 지원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강진군이 추진한 유전체 검사사업은 한우 업종체상 유전자를 분석해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개량사업이다.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선 8기 들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군과 축협, 한국축육개량협회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대상 개체별 유전체 분석결과(능력지수) 보고서를 해당 농가에 배부하며

안내·지도하고, 참여농가의 개량방향과 계획 교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9월부터 혈통등록 암소 700두를 유전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10월 모근(꼬리털)을 채취했으며, 11월 중 한국축육개량협회의 유전체 분석(도체·체형·번식)을 완료하고, 12월 현재 대상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한우 유전체 분석검사 및 농가컨설팅 지도 사업은 향후 혈통정보 및 한우 형질능력 결과를 바탕으로 우량암소를 조기 선발하고, 저능

력우는 조기 도태함으로써 개량 세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 경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맞춤형 한우개량을 통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매년 최우수 암소를 지속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해 강진 한우를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한우등록, 정액공급, 선택심사, 친자감별, 등급향상제, 장려금 등 맞춤형 한우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등급 이상 평균 등급률을 77%까지 향상시키고, 매년 유전체 검사를 통해 한우개량을 가속화 하며 신규 명품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지난 2일,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강진군과 한국축육개량협회에서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검사 지원사업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장흥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총 146명 생활지원사·9명 전담사회복지사 활동

장흥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한마음 대회가 5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종사자간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해 추진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취약 어

르신들의 안부살피기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됐다. 현재 총 146명의 생활지원사와 9명의 전담 사회복지사가 2,343명의 대상자들에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그간 사업 추진 시 진행 하였던 프로그램과 활동사례 등이 담긴 영상

을 함께 시청하고 우수 종사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14명의 돌봄 종사자(군수 4, 군의장 4, 기관장 6)가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행복이 어르신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모색 토론회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구축 등 논의

완도군은 지난 12월 1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성운 완도 부군수와 전남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등 해양바이오 기관 및 학계 전문가, 기업 대표 등 18명이 참여했다.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 지난 2020년 제정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해양바이오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어 완도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완도의 미래,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 가치',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현황과 완도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기획실장은 "완도군의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은 타 지역과 견주어봤을 때 강점이다"면서 "지역 내 연구·개발 역량의 부족과 정주 여건 및 접근성 그리고 해조류산업이 단순 가공 중심의 지역 산업이라는 약점을 보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중원 박사는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는 구축 초기 단계로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해양바이오공

동협력연구소 등 클러스터의 맹아가 될 핵심 기업과 내부 네트워크가 균형 있는 원심력을 갖추었을 때 성공적인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전략 및 민간 기업 입주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 유치, 행정-연구-기업 간 완도군의 중추적인 역할, 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해조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푸드 테크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강성운 부군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중심에 완도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시설,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및 코스메틱 소재 생산지원 시설 등 해양바이오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옥천농협 간마늘 가공센터 준공

연간 1천톤 간마늘 생산...현대화 설비 갖춰 부가가치 향상



해남=기동취재본부

해남군은 옥천농협 간마늘 가공센터를 준공했다. 복합면 금당리에 소재한 간마늘 가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국비 2억3,5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억8,300만원을 투입해 완료됐다. 가공실 등 1층, 655㎡ 규모로, 마늘 투입에서부터 껍질까지, 분류, 포장까지 가능한 간마늘 자동화 기계장비 등 현대화 설비를 갖추고 연간 1,000톤의 간마늘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간마늘 공장 준공으로 전국 주산지인 해남마늘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2021년 땅끝농협에 마늘 후레쉬센터 및 마늘종합가공처리센터 등 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